

■ 영상 택배 시즌 2 - 노동자의 날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아닌 노동절인 이유 알고 계신가요?

하루 최고 18시간의 노동시간



돌아오는 토요일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분들도 많습니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자>라는 단어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부처 명칭도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정직한 땀방울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날을 기억해주세요.

5월부터는 연구원에서 직접 녹화한 영상택배가 배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렴하지만 아름다운 Youth Hostel 새벽 풍경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책에 수록된 호수지역 풍경

오래 전 어느 날, 영국에 관심이 생겨서 영국관련 여행 서적을 보던 중에 동아출판사 간행 여행 시리즈의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워즈워드가 사랑한 고향 -'호수지역'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평소 워즈워드의 시에 관심이 있었던 터였는데, 경치 또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바로 그 호수지역으로 여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떤 여행가는 세계지도를 펴놓고 한 곳을 펜으로 찍고서는 무작정 그곳으로 간다고 한단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곧 바로 항공권, Britrail Pass, Youth Hostel 회원권 그리고 또 다른 여행 가이드 책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그곳 호수지역을 빨간 펜으로 표시영국 지도를 펴고 영국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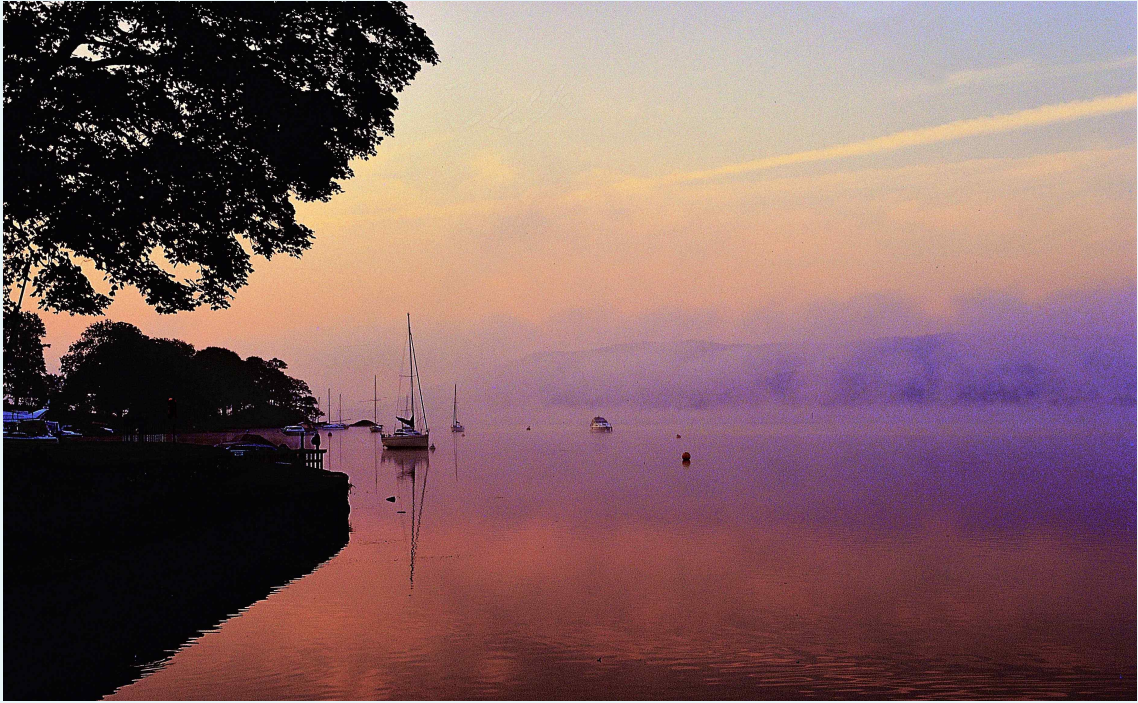
생각해보면 물론,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처럼 철저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계획 또는 무모한 일이었고 겁 없이 떠난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 유명한 호수지역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무사히 도착한데에는 그곳 사람들의 친절도 한몫했다. 기차역에 내려서 다른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스호스텔에 대해 물었더니, 자기가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기 차에 타라고 한다.

유스호스텔까지는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더군다나 자기 동네와는 반대 방향이었는데, 기꺼이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친절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유스호스텔 마당 안에 까지 들어가서 다 왔다고 하길래, 고맙다고 하며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했더니, 가지 않고 있으면서 나보고 우선 가서 방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왜냐면 혹시 방이 없으면 다른 유스호스텔에 또 태워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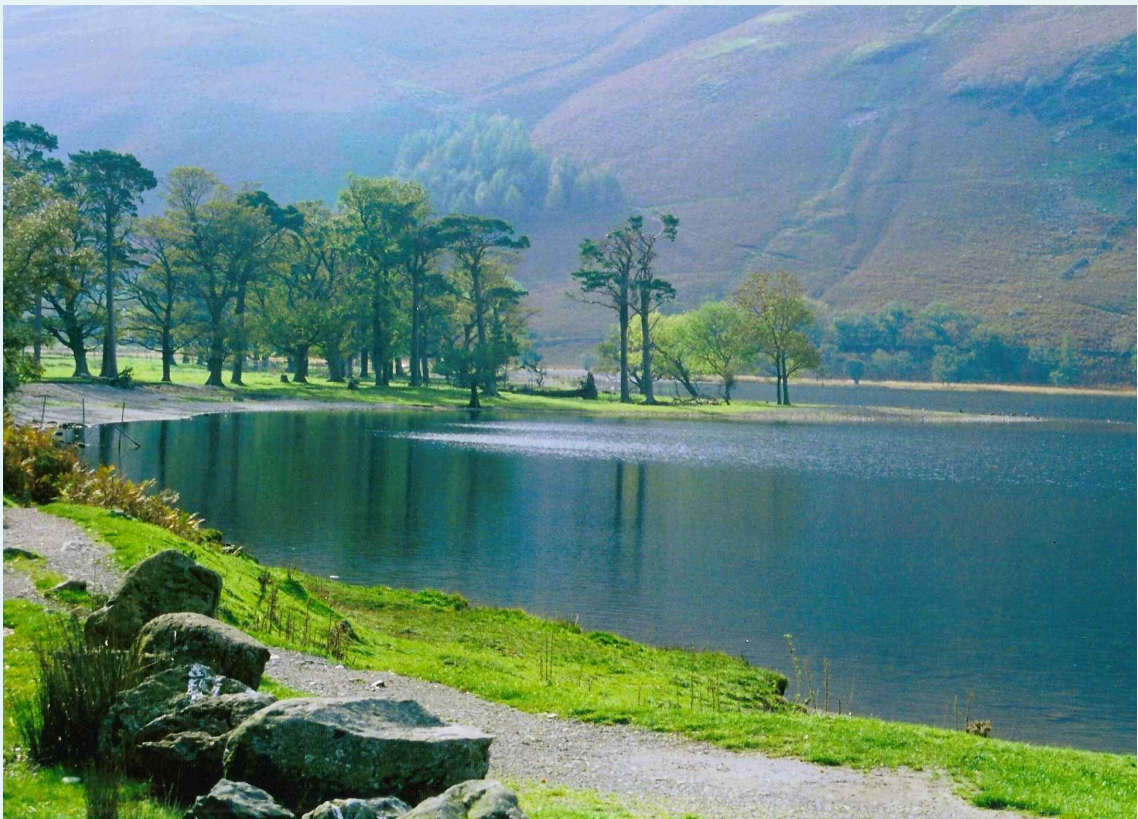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얼떨결이어서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두고 두고 후회 된다. 아무튼 친절의 영국인 덕분에 호숫가의 유스호스텔에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고 물안개 피어오르며 물새의 날개 짓에 깨어나고 있는 호수의 경치에 넋이 나갔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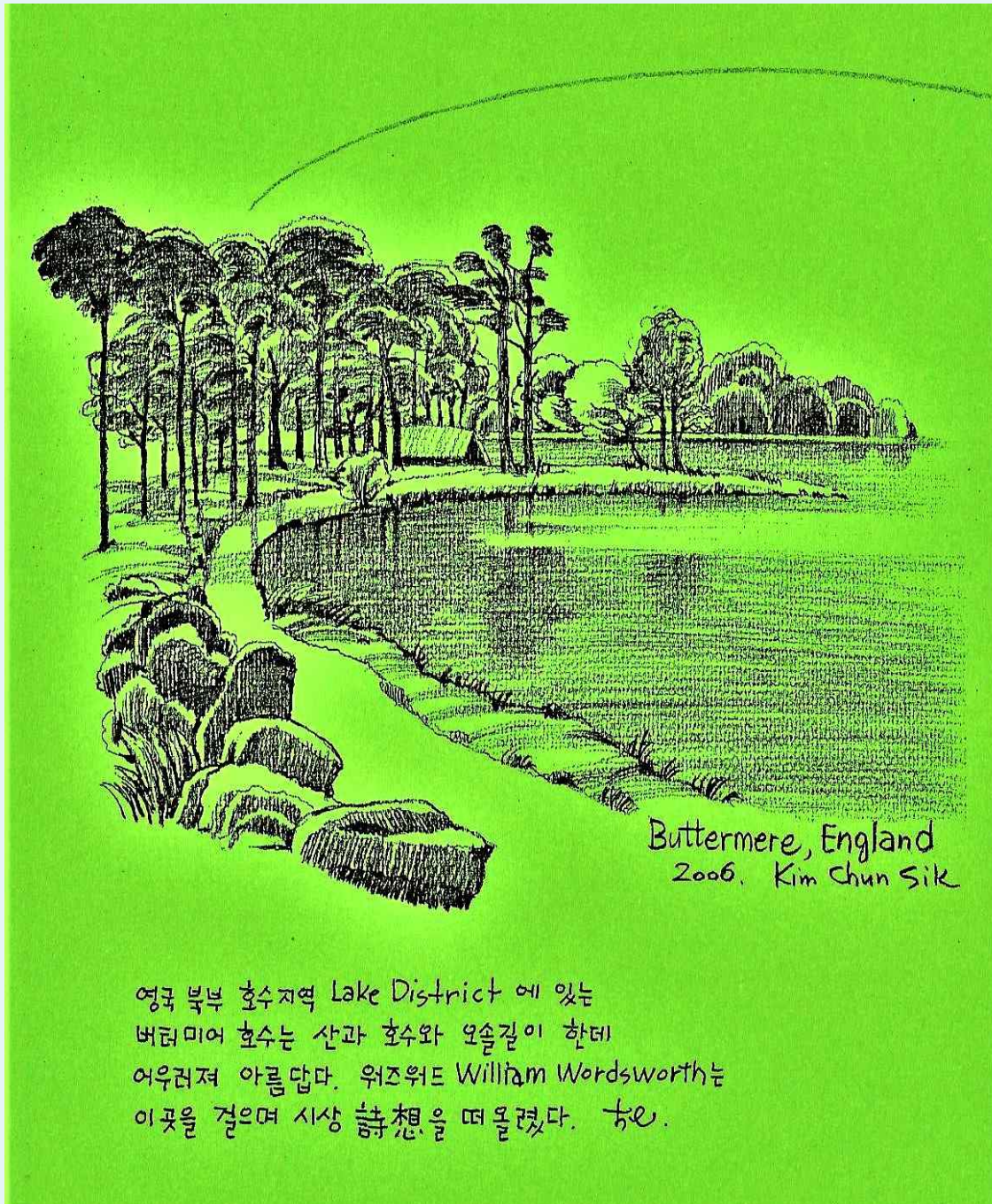
저렴한 숙소 앞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호수 건너 숲속에 피아트릭스 포터가 살았던 집(Hill Top)이 있다. 그곳은 배로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다.



파스텔 톤 핑크 빛의 새벽 호수



책에서 본 호수를 찾아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담았다.



Buttermere, England
2006. Kim Chun Sik

영국 북부 호수지역 Lake District 에 있는
버터미어 호수는 산과 호수와 모솔길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다. 워즈워드 William Wordsworth는
이곳을 걸으며 시상 詩想을 떠올렸다. ㅎ.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그려 보기도 하였다.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열세 번째 이야기

봉화의 청량산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청량산의 비경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봉화로 달려갔다. 영양읍을 지나자, 전면의 차창으로 일월산(日月山)이 가득 찼다. 크기와 높이가 범상치 않았으니, 이 산은 영겁의 세월동안 언저리의 사람들을 보듬고 키워냈으리라. 이 산의 서쪽 자락이 바로 목적지 청량산(淸涼山)이다.

구불거리던 길이 조금 반듯해지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기와집이 들어찬 묵은 동네 하나가 나타난다. 조지훈(趙芝薰) 선생을 낳은 주실마을로, 예기치 않은 일별이었다. 살아생전 선비다운 풍모를 내내 지니셨던 선생의 출생지다운 마을이었다.



청량사



청량사 석탑

청량산의 입석을 들머리 삼아 청량사로 올랐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기봉을 엮은 청량사는 단정하고 적막했다. 이곳 역시 원효 대사가 터를 잡았다는데, 앞쪽의 소나무 한 그루가 뿔 셋 달린 소에 관한 전설과 함께 '삼각우송(三角牛松)'이란 이름을 내걸었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현신이었다는 소를 위해 지장전이 옆으로 바짝 다가들었다.

절에서 뒷실고개까지 오르는 길은 급경사로, 계단이 연이었다. 주변 경관은 참으로 선경이었다. 학을 타고 노니는 심정이었지만, 가쁘고 거친 숨소리는 결코 숨길 수 없었다. 아무튼 선계의 열 두 봉우리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재미 또한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행복하다는 느낌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해발 800m에 설치된 하늘다리는 자란봉과 선학봉 사이에서 홀로 누워있었다. 중간 즈음에 이르자, 세찬 골바람이 뒹뒹거리며 불어와 다리를 흔들었다. 머리털이 쭈뼛 섰으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또한 일었다. 오로지 과객 한 사람을 위해, 주봉에 해당하는 해발 870m의 장인봉(丈人峰)으로 건네주기 위해 이 연두색의 현수교가 학이 된 것 아닌가? 때문에 거리낌 없이 다리에 올라 바람을 타는 것 아닌가?



청량산 하늘다리

장인봉으로 오르는 길도 쉽지 않았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거의 수직을 이룬 철 계단이 아니었다면 종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장인봉의 정상은 김생(金生)의 글씨를 집자(集字)해서 표지석으로 내세웠다. 평평하고 수더분한 인상의 정상이었지만, 내다보는 시선만큼은 거침없었다. 한참을 앉아 쉬었다. 세상은 고요하게 아래로만, 아래로만 가라앉았다.

다시 하늘다리를 건너 뒷실고개로 돌아왔다. 동쪽으로 연적봉의 직벽에 놓인 계단을 까마득히 올려보다가, 슬그머니 하늘의 눈치를 보았다. 어느 틈에 하늘이 먹구름 뒤덮여 컴컴해지고,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친 까닭이었다. 눈이 내릴 김새가 분명했으니, 결국 청량사로 다시 내려갈 도리 밖에 없었다. 염두에 두었던 연적봉과 탁필봉 그리고 자소봉은 포기해야 했다. 마지막 일정이니 강행군을 할까? 고집을 피우고 싶었지만, 기실 체력까지 많이 고갈된 상태였다.

경주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결국 미완의 상태로 접고 말았다. 미진한 심정에서 오는 아쉬움도 뒤따랐다. 그러나 미완은 완성을 기약하고, 아쉬움은 재회를 꿈꾸지 않는가? 한마디로 또 다른 내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열세 번에 걸친 경주 답사기를 마칩니다. 지난 겨울부터 좋은 글 나눠주신 유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